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미 사 시 간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 아 세 려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알 림

12월 11일(일)	자선 주일 2차 헌금
12월 18일(일)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
12월 21일(수)	경로당 월례 미사(소성전, 11시)

※ 새벽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모 임

단체명	일 시	장 소
1Cu-우리 어머니	12월 11일(일), 12:00	강 당
2Cu-사도들의 모후	12월 11일(일), 13:30	강 당
임원 모임	12월 14일(수), 20:00	식 당
울뜨레아	12월 18일(일), 11:40	강 당
3Cu-사랑의 모후	12월 18일(일), 13:00	강 당

대림 특강 (목요일 저녁 20:00)

일 자	제 목	강 사
12월 15일	성사적 신비를 사는 그리스도인	박해승 요한보스코 신부님

대림판공성사 지역별 일정

- 1지역/2지역 : 12월 12일(월), 20:00
- 3지역/4지역/5지역(구역외) : 12월 13일(화), 20:00

성물방 신간 안내

- 제 목 : “흥미진진 성경 읽기”
- 저 자 :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님

성탄 및 송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안내

24일 (토)	아침미사	아침 6:30
	성탄 밤미사	저녁 8시, 밤11시(중고등부) (저녁7시 미사 없습니다.) ※ 대림신앙실천표(대림저금통) 제출
25일 (일)	성탄 대축일	10:30, 12:00, 13:00(유초등부), 19:00 (6:30 미사는 없습니다.)
31일 (토)	아침미사	아침 6:30
	송년미사	저녁 8시 (저녁7시 미사 없습니다.)
2023년 1/1(일)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06:30, 10:00(중고등부), 10:30, 12:00, 19:00

* 서울대교구 제16지구 항동성당 신축지원 *

- 제16지구 사제회의 결정 (2022. 3. 3.)
- 지원금액 산정 : 본당 신자 수 × 10,000원
- 납부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 11월 30일 현재 ₩20,050,000 납부되었습니다.

신자들이 지켜야 할 여섯 가지 의무

1. 미사 참여 의무 : 모든 주일과 의무 대축일
2. 금육과 단식 의무
 - 금육 : 연중 매주 금요일과 재의 수요일
 - 단식 : 성 금요일과 재의 수요일
3. 고해 성사의 의무 : 부활과 성탄(판공성사)
4. 영성체의 의무
5. 혼인성사의 의무
6. 교무금과 헌금 납부의 의무
 - 성당의 유지와 사업을 위해 가정 단위로 교무금을 내야하고, 헌금을 각자 정성껏 봉헌합니다.

다음 주일(12/18)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12구역	청 소	9구역
------	------	-----	-----

우리들의 정성(11월 30일 ~ 12월 6일)

- 교 무 금 12,372,000원
- 주일헌금 4,605,200원
- 국군장병과 수감자를 위한 2차 헌금 1,851,100원
- 시설헌금 김○○ 50만원
 - 강미자100만원 서만심 6만원 오원식 5만원
 - 오혜영50만원 최순애10만원 전필순 3만원
 - 김윤태 5만원 윤남기10만원 심진보15만원
 - 국춘자10만원 조흥식5만5천원
- 감사헌금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12/11	박혜선	조흥환	도현만	윤상기	김명선
12/18	최경희	오성환	김영균	김덕영	정재경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2/11	박승환	오광운	박형순	최승일	박용환
12/18	박용만	최용만	박승환	김인기	오광운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모든 형제들” -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240. 그러나 용서, 평화, 사회의 화합에 관하여 성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다소 당혹스러운 표현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마태 10,34-36). 이 말씀이 들어 있는 마태오 복음 10장의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분명히, 당신을 따르기로 한 우리의 선택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온갖 시련을 겪게 될 지라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선택에 반대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내린 선택에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 갈등을 일으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불가피한 갈등을 감내하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인간 존중이 가정이나 사회의 평화에 대한 불충실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모든 사회적 쟁의를 단죄하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역사 안에서 다양한 사회 집단 사이에 불가피하게 갈등이 일어나고, 이러한 갈등 앞에서 흔히 그리스도인이 과단성과 일관성 있게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투쟁과 용서

241. 이는 부패한 권세거나 범죄자,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는 자들 앞에서 자신의 권리들을 포기하는 용서를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제외하지 말고 모든 이를 사랑하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억압자를 사랑하라는 말은, 억압자가 계속 억압해도 이를 용인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그가 자신이 한 짓이 용납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게끔 만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정반대로, 그 억압자를 사랑하는 좋은 방식은, 여러 방법을 써서 그가 억압을 멈추게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사용할 줄도 모르고 인간으로서의 그를 변질시켜 버린 권력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누군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존엄을 계속 짓밟는 것을 용납한다거나 범죄자가 계속 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내버려 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의한 고통을 겪는 사람은 자신과 자기 가족의 권리들을 강력히 수호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느님께서 그에게 사랑의 선물로 주신 고유한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범죄자가 나에게 또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한 명에게 악행을 저질렀다면, 그자가 또는 그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내가 정의를 요구하고 이를 위하여 노력한다고 해서 나를 말릴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용서는 이처럼 꼭 필요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요구합니다.